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방안

구분	방안
국외공간	- 아시아문화광장: 디지털광장 조성 - 아시아문화원 옥상광장: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 어린이문화원 옥상광장: 어린이 친환경 체험공간
민주평화 교류원	- 민주·인권·평화 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광주시 및 5·18기념재단 등 국내·외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운영
아시아문화 정보원	- 활용 가능성 높은 아시아문화자료 조사·수집 - 차별화된 아시아문화자료의 열람·체험 공간인 라이브러리파크 운영 - 창의적인 아시아 문화전문 인력 양성
문화창조원	-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발전소로서 역할 정립 - 새로운 콘텐츠 미래산업화 방안 추진 - 다양한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아시아 예술극장	- 아시아 컨템포러리 페스티벌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 페스티벌 - 시즌 프로그램 마련: 봄(새로운 예술과의 만남), 가을·겨울(대중과의 소통) - 신진예술가단체 발굴 프로그램, 관객 프로그램
어린이문화원	-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전시 프로그램 - 학교 및 유관기관 협업 기반 창작프로그램 진행 - 공모전·페스티벌 등 국제적 어린이 축제프로그램 추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권역별 조성 방안

문화권	조성대상지(안)	문화거점 주요 프로그램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아시아 문화교류권	남구 사직공원, 양림동, 광주공원 일대	- 아시아 음악타운 조성 - 다문화센터 조성(다문화 음악축제 등) - 아시아예술인 공방촌 조성
아시아 신과학권	광산구 비이동 일대	- 광(光)아트산업융합 문화콘텐츠 개발운영 - 동서양 의과학(전송의학) 융합연구 및 신기술 개발단지 조성
아시아전승 문화권	남구 대촌, 칠석동, 호천역세권	- 고차음 브랜드 개발 - 아시아전승문화 콘텐츠 개발 - 아시아전승놀이 테마파크 조성
문화경관 생태환경보존권	북구 및 동구 무등산·광주호	- 광주둘레문화 생태보존 환경 조성 - 무등산권역 브랜드 조성
교육문화권	서구 마곡동, 공군탄약고 부지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
시각미디어 문화권	북구 중외공원 일대	- 중외종합예술공연장 조성 - 비엔날레형 국제제주 조성

‘가을방학’ 2집 기념콘서트

5개 도시 투어... 8일 광주공연



그들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이었던 계곡의 음색은 무심한 듯 아련하다. 무엇보다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독특함이 매력적이다. 그녀가 ‘언니에 이발관’, ‘줄리안 하트’에서 활동한 정바비와 만나 ‘가을방학’이라는 ‘딱 어울리는’ 이름의 듀오를 만들었을 때 개성 넘치는 두 뮤지션의 결합에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컸다. 첫 결과물인 ‘가을방학’ 1집은 인디 음반으로는 드물게 2만여장 넘게 팔리며 스테디셀러가 됐고 취미는 사랑,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을 때가 있어’, ‘속아도 꿈꿀’ 등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가을방학’이 2년 반만에 선보인 2집 ‘선명’(사진) 발매 기념 콘서트를 갖는다. 서울·대전 등을 잇는 5개 도시 투어로 광주 공연은 8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2집 타이틀곡인 ‘3월의 마른 모래’, 어느날 삼삼대로 접어들어 당혹감을 낙천적 인생관에 녹여낸 ‘좋은 아침이야, 점심을 먹자’, 슬픈 이별 송가 ‘잘 잊지 말아요’,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이면 공감할 ‘언젠가 너도 이해’ 등 신곡들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전석 5만5000원. 문의 1544-1555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영산강 고대문화 아우른 상생 전략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최종확정

기존 예산 5조2912억원 유지... 적기투입 과제 지산유원지 한옥마을·청소년 지식박물관 추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을 연계한 상생발전 전략으로 광주를 문화예술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7대 문화권 사업 가운데 문화전당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오는 2015년부터는 아시아문화교류권 사업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수정 계획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예산(5조2912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수정계획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문화전당 조

성계획 목표에 광주와 전남 지역이 아울러 발전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교류 도시로 조성하고 전남의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장기적 포석이다. 문화중심 도시사업 가운데 세부 변경 사업으로는 문화적 도시환경 부문에서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 민주평화광장, 지산유원지 주변 오감한옥마을, 금남로 인권거리, 무등산 브랜드, 문화예술시범학교, 다문화센터 건립, 산단 아트팩토리, 청소년 지식 박물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으로는 CT연구원 설립 추진,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등 문화산업 분야 위주

로 반영됐다. 문화교류 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문화도시협의체 구성, 문화포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 관련 분야와 도시브랜드 통합지원체계 구축, 문화인력관리 센터 설립 등이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산업 관련 기관의 이전하고 2014년 KTX 개통, 다문화 사회화 등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포함됐다. 오는 2014년 완공될 문화전당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문화전당 내 유휴공간에 아시아문화원 옥상광장, 이벤트 마당, 어린이 문화원 옥상광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는 계절별로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 문화원’에서는 지역 학교와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창작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수정계획에는 문화전당 5개원(민주평화 교류원·아시아 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 문화원)의 세부 시설 구축방안도 담겼다. ‘민주평화 교류원’에는 민주·인권 평화기념관, 아

시아문화 교류지원센터가, ‘아시아문화정보원’에는 아시아문화연구소, 문화지원센터, 아시아 문화아카데미가 들어선다. 문화창조원 세부시설은 문화콘텐츠 제작센터, 복합전시관 등이다. 어린이 문화원에는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센터, 어린이 체험관이 조성된다. 대표적인 공연공간인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는 아시아 현대 공연예술의 창작·제작·실연 등 전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문화전당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서는 전당의 건립예산의 적기 확보가 과제로 부각됐다. 문화전당 완공을 위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모두 6972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4439억원만이 집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000여억원의 예산이 집중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 수정계획에 광주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며 “종합계획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부와 협조를 강화하고, 세부 사업은 연차별 실시계획 등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둘레길’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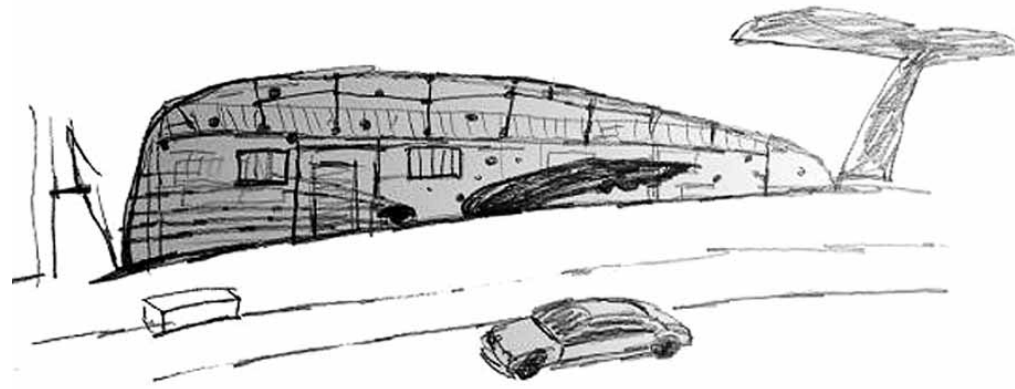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은 3일부터 광주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시설 및 자원을 직접 방문·체험하는 문화 나눔이 프로그램 ‘광주문화둘레길’을 진행한다. 올해는 광주문화재단, 교육문화공동체 결, 상상창작소, 대동문화재단, 극단 진달래피네, 무등산분청사기 ‘백’사업단이 총 9개 코스를 운영한다. 광주공중합성센터 두부만들기 체험, 평촌도예공방 분청사기 도예체험, 양림동 근대역사 탐방,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 답사, 월봉서원 선비문화체험, 칠석마을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복지시설 및 단체는 30~40명 규모의 팀을 구성,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받는다. 문의 062-670-791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다도 디자인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하우스-고래집’ 시민참가자 모집

시민 디자이너들이 푸른길 공원을 친환경 문화 소통 공간으로 꾸민다. 순환하는 화장실을 만들어 푸른길 공원 뒷밭에 거름을 주고, 시민들의 디자인 작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직접 만든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시민참여프로그램의 하나인 ‘나도 디자이너:I am a carpenter’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 농장다리 옆에 있는 낡은 한옥과 푸른길 공원 공터에 생활환경 디자인을 접목시킨 커뮤니티 문화공간 ‘시민 디자인하우스-고래집’을 만들게 된다. 친환경을 상징하는 고래가 도심 속에 내려온다는 개념의 ‘시민 디자인하우스-고래집’(개념도)은 생태

환경 메시지와 재생 에너지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50명의 참가자가 10개팀으로 나뉘 순환하는 화장실 디자인, 길거리가구 디자인, 시민디자인하우스의 디자인 가계, 외관, 옥상, 앞마당 조경디자인 등 6가지 미션을 각각 수행하고 고래와 북극곰을 형상화한 공예작품 만들기 작업을 함께한다. 각 팀에게는 200만원 내외의 작업비와 활동비가 지원된다. 완성된 고래집은 8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가신청은 3일부터 13일까지다. www.gwangjubennale.org. 문의 062-608-425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현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